

2010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1  
복음서에서  
(1)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성경: 마 1:1, 23, 3:17, 17:5

- I.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한다—1:1, 9:27, 15:22, 20:30-31, 21:9.
- A. 다윗의 자손 솔로몬은 왕국을 물려받으시고(삼하 7:12 하, 13 하, 렘 23:5, 눅 1:32-33), 지혜를 가지시고 지혜의 말씀을 하시고(마 12:42),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는(삼하 7:13 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 B.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신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왕국을 상징한다—마 5:3.
  - C.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심은 또한 우리가 신성한 권위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16:19, 18:17-18, 28:18-19.
  - D.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왕국에 관한 것이다—삼하 7:8-16.
    - 1. 일단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로 가득한 왕국을 가지신 후에는 그분의 선민에게 약속된 축복이 되도록 무엇이든지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분의 행정 안에서 수행하실 수 있다.
    - 2. 다윗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그분의 왕권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자신을 그들 안으로 분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이신 부활하신 왕이시다—12-13 절, 행 13:32-35, 사 55:3-4, 롬 5:17, 계 20:4, 6.
- II.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은 약속된 분으로서 모든 민족들에게 축복을 가져오시고(창 22:18, 갈 3:16, 14), 죽기까지 하나님께 드려지시고 부활하시고(창 22:1-12, 히 11:17, 19), 신부를 맞으실 분(창 24:67, 요 3:29, 계 19:7)이신 그리스도(마 1:1)의 예표이다.
- A.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에게 축복이 되도록 오심에 관한 것이다—창 22:17-18.
    - 1. 이 언약의 결과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완결되신 영으로서 우리의 축복이 되셨다—갈 3:14.
    - 2.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땅의 모든 민족들의 축복을 위해 그분 자신을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나눠주시도록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창 22:18, 갈 3:16, 14, 고전 15:45 하.
  - B.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먼저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 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마 1:1.

1.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민의 축복이 되시기 위해 그분의 권위로 가득한 영역인 왕국이 필요하시다—골 1:13.
2.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의 왕의 신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왕권과 주권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3.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생활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축복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누린다.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수록 우리의 축복이신 삼일 하나님을 더 누린다—갈 3:14.

### III.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마 1:23, 사 7:14.

- A. 하나님이 육체 되신 예수님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느낌을 갖는다—롬 10:12-13, 마 28:20.
- B.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이 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진정한 신성과 참된 인성을 소유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 둘 다이시다—요 1:1, 14, 롬 8:3, 1:3-4, 딤후 2:5, 3:16.
- C.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서 주 예수님은 각 방면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신성 안의 역량과 인성 안의 역량이 있으시다—빌 4:19.
  1. 우리는 그분의 존재같이 신성하도록 신성한 역량 안의 그분이 필요하고, 최고 수준의 도덕성에 있어서 그분의 존재같이 인간적이도록 인간적인 역량 안의 그분이 필요하다—마 5:48, 눅 6:35.
  2.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존재처럼 신성한 사람인 하나님-사람이 될 수 있다. 그분은 우리가 신성하게 되는 사람이도록 사람이 되시는 신성한 분이시다—요 1:12-14, 롬 8:3, 1:3-4.
  3.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가장 뛰어난 방식으로 적절하고도 충분하게 채우신다—빌 4:19.
- D.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신 실지적인 임마누엘은 실재의 영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서와 우리의 모임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요 1:14, 14:16-20, 고전 15:45 하, 마 28:20, 딤후 4:22, 마 18:20,

### IV.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그리스도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다—마 3:17, 17:5.

- A.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체험과 표현이시다—골 2:9, 요 1:1, 14, 14:9-10.
  1. 아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간 생활과 일에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표현하셨다—3:34, 5:43, 7:16-17, 10:30, 12:47-50.
  2. 아들을 갖는 것은 아버지와 그 영을 다 갖는 것인데, 그것은 아들이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실재화 되신 삼일 하나님의 체험과 표현이시기 때문이다—14:9-10, 16-17.
- B.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도록 신격의 충만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체험과 표현이시다—1:16, 엡 3:19.
  1. 아들 안에서 우리는 신격의 충만에 참여한다—요 1:16.
  2. 우리는 신격의 충만에 참여할 때 삼일 하나님의 표현인 삼일 하나님의 충만이 된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 충만, 단체적 표현이 된다—엡 3:19.